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8 Winter Vol.55



책임감



세플러원을
모바일로도 만나보세요.

Theme+Talk

10 테마로 세플러 보기
세플러 성장 모멘텀Ⅳ 책임감



Schaeffler+ People

26 가족사진촬영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가족 케이크'



Life+Culture

40 세플러 로드
눈이 있어 특별한 일본의 겨울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8 Winter Vol.55

세플러원은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입니다.



세플러원을
모바일로도 만나보세요.

발행일 2019년 1월 15일(통권 제55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 311. 3019
 기획·디자인 에이플랜
 (TEL) 070. 7570. 0605
 출력·인쇄 NOVA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4 신년사



Theme + Talk



10 테마로 세플러 보기
 세플러 성장 모멘텀Ⅳ '책임감'

14 테마로 재미 읽기
 인간은 책임지는 동물이다

18 테마 칼럼
 책임감, 1 이상의 응답 능력



Schaeffler + People



22 Show me the 팀웍
2018년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우리는 일당백"
- 새시시스템 BD 영업

26 같이의 가치
"베어링 허브 제조 기술은 저희가 최고입니다"
- 삼동허브(주) 대표이사 신병일

28 포토 에세이
겨울 속으로

30 가족사진촬영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가족 케이크'
- 전주공장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한민수 사원 가족

34 식사를 합시다
테크놀로지 연구기획 김경운 부장, 테이퍼롤러베어링 설계 박광수 대리
RPA & 벤치마킹 김훈 대리, 폴리머 & 윤활기술 백상하 대리가 소개하는
맛집 제주 흑다돈

36 Young 세플러
I'm new

Life + Culture

38 세플러 로드
눈이 있어 특별한 일본의 겨울

42 행복한 직장인
리바이스 이야기에서 배우는 책임감의 3단계

46 문화의 숲
연말연시 온 가족 무비무비

50 Schaeffler FOCUS

54 Schaeffler NEWS

55 Schaeffler Hotline



新^신 年^년 辭^사

SCH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례 없는 부진과 글로벌 경기의 정체로 인해, 총매출액의 80%를 자동차 부문에서 창출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의 전환 과정에서 당사의 주력시장에 침투한 경쟁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경쟁을 통해 당사의 국내 거래뿐 아니라, 미국 상무성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는 등 Transmission사업부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회사 전체적으로도 2019년 매출 계획을 2018년 보다 축소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Transmission 주력 공장인 창원공장은 그 영향을 극심하게 받고 있어 월별 결과이지만 최초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JOEM 확대 전략도 최근 잇단 품질 문제 발생으로 신규 수주 제한이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부터 저를 포함해 전 세플러코리아, 안산 경영진들은 성장 중심의 경영전략을 능동적으로 수정해 보다 강력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 부합한 새로운 사업계획 및 전략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SchaefflerKorea Revised Strategy 4+1로 명명된 이 전략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고 다가올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하고 있었던 Business Transformation, Customer Diversification 전략은 보다 강력하게 계속해서 추진하되, Transmission 부분의 급격한 수요 감소로 투자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New Bearing Production Concept 부분을 과감히 폐기하고 조금 더 실질적이며 달성 가능한 Operation Excellence 전략으로 변경해 실행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성공적인
Resource Transformation 전략의 추진을 통해 제한된 비즈니스 규모 및
투자자원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Operation Excellence는 사업부문과 공장부문을 통합해 최적의 시장전략과 제품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제반생산 프로세스와 투입 요소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유효한 투자를 통한 개선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말합니다. 이와 아울러 인공지능 및 Robotics로 대변되는 Smart Factory에 대한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존 Business Transformation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인 문제로 제시되었던 새로운 기술역량의 구축을 중요한 하나의 전략 축으로써 독립시켜 역량 강화(Strengthen Capability) 전략으로 재조직화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사업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우선 전략에서 간과했던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당사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그 활용도에 맞추어 재배치하거나 그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성공적인 Resource Transformation 전략의 추진을 통해 제한된 비즈니스 규모 및 투자자원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가운데 적잖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겨 낸 이러한 어려움을 초석으로 다시 한번 IMF와 유사한 사태가 와도, 금융위기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와도 견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목표를 달성한 IB 사업부문, 사시사업부, 전주공장 및 각 지원 부문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창원공장은 Transmission 사업부, 전주공장은 Chassis사업부로 새롭게 편재되어 그야말로 사업부별로 일사불란한 기업경영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전 종업원들의 능동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건강 챙기시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2019년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이병찬**

Sense of Responsibility

“각자의 집 문 앞을 쓸어라”

괴테가 책임감에 대해 한 말이다. 생각해보면 메시지는 간결하다. 내가 내 집 앞을 쓸면 온 거리는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즉 각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책임감은 한 가지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나로 인해 다른 동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 업무는 혼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각 부서의 사람들이 다양한 단계에 참여해 완성된다. 나의 업무 처리가 이후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 이전 업무의 성과를 비틀어 놓기도 한다. 따라서 협업 상황과 업무의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고 제 몫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일이 제대로 흘러가고 회사에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책임감’

세플러 성장 모멘텀 IV

세플러 리더십의 본질적 요소이자 그룹의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는 네 번째 요소는 ‘책임감’이다. 세플러 그룹은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능력, 나아가 회사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임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명확한 의사결정과 결정에 대해 지지하기. 둘째, 필요 시 충분히 고려한 후 위험 감수하기. 셋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주인의식 가지기. 넷째,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 수용하기. 다섯째, 팀의 결정을 지지하기. 하지만 제시된 사항을 실천하기에 앞서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명확한 의사결정과 결정에 대해 지지하기

조직에서 책임감의 시작은 의사결정이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은 의사결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목표와 상관없이 대안 자체가 좋아서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팀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야말로 결정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사안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자연히 그 안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따를 수 있다. 물론 누구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 위험 감수가 가치가 있고 해볼만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필요 시 충분히 고려한 후 위험 감수하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주인의식 가지기

어떤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해결책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찾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 현명한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경영자의 호소나 압력만으로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기란 어렵다. 따라서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일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더해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 나아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 또는 나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비판을 당할 경우 유쾌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판은 무언가를 진정으로 잘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요소이기도 하다.
비판은 결과물이나 상황을 보다 건설적인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기술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개선하고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 수용하기



팀의 결정을 지지하기

팀에 소속된 팀원이라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아가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합이 맞는 강한 팀워크는 무엇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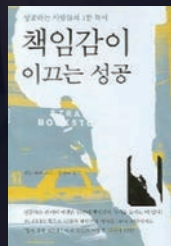
세플러 그룹에서 제시한 책임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짚어봤다.
이제 책임감의 방향을 찾았다면 책임감을 장착해 줄 심화학습으로 넘어가보자.
인간의 정신능력 발달과 교육에 있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하워드 가드너와 기업 컨설팅의 대가인 리 J. 콜란의 책을 소개한다.
팀원은 물론 리더에게도 유용할 책임감의 다양한 활용법이 담겨있다.



굿워크 굿워커

『굿워크 굿워커』는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훌륭한 직업인의 조건으로 '책임감'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직장에서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훌륭한 전문 직업인 되기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연구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 책은 책임의 인상적인 형태, 책임감을 야기하거나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업무에 이르게 하는 위협과 방해물,
그리고 더 많은 책임감을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개입에 관해 밝힌다.

HOWARD GARDNER 지음 | 학지사



책임감이 이끄는 성공

성공하는 리더의 비결, 그것은 팀원의 책임감과 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팀원의 비결도 자신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1분 독서』 시리즈 다섯 번째 이야기 『책임감이 이끄는 성공』은
리더가 자신의 힘을 팀원과 공유하여 책임감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자칫 막연할 수 있는 주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공의 팁을 제시하는
이 책은 리더가 책임감과 성과를 동시에 고양시킬 수 있는
4가지의 단순한 힘의 전환 단계(설명 → 질문 → 참여 → 평가)를 제시하면서 팀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도와준다.

리 J. 콜란 지음 | 한연

인간이 여느 포유류와 다른 점은 책임지는 동물이라는 데 있다.
그 반대의 말도 성립된다. 인간과 동물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가 자기합리화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탓’과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산다.
이런 이들을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책임감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책임감 유무가 주인과 객을 감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일까.

인간은 책임지는 동물이다

책임 뒤에는 겸손함이, 회피 뒤에는 변명과 거짓말이

‘나 아니면 안 돼’란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과는 혼동하지 말자.

책임감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에 걸맞은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곤란한 상황을 넘어가려는 자세, 참으로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아주 영특(?)한 특징이다. 실제로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헷(Heinz Kohut)에 따르면 인간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자기'를 보호하려는 인간 특유의 '자기사랑' 본능이 있어 주어진 수치를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이런 본능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내 책임은 없고 나 역시 남에 의해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치게 만든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랬다.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부시는 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전쟁을 시작한 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못했을 때 나보다 더 충격을 받고 화가 났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대단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전쟁을 개시한 이가 다름 아닌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된 정보에 속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다.

책임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1969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데시(Edward L. Deci)는 대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소마라는 재미있는 블록 퍼즐 실험을 했다. 한쪽 그룹에는 형상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1달러씩 주기로 했고 다른 쪽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아무 보상 없이 퍼즐 자체를 즐긴 그룹 학생들이 훨씬 많은 흥미를 보였고 몰입도도 높았다. 퍼즐에 몰두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이 실험은 인간이 보상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상과 벌이 인간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스키너식 행동주의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준 실험 결과였다. 인간은 고작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에드워드 데시는 이 실험 결과를 좀 더 보완하여 '자기결정성'이론을 내놓았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출발이 자신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이란 결국 자기결정에서 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돼'란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과는 혼동하지 말자. 지나친 책임감은 바이러스처럼 위험하다. 이른바 책임감 바이러스이다. 책임감 바이러스란 혼자서 말없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고민하는 리더가 어떻게 조직을 파괴하는가를 보여준다. 충분한 대화 없이 혼자서 책임을 떠맡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은 같이 협력해야 할 동료와 부하직원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혼자서 책임을 떠맡게 될수록 동료와 부하직원은 점점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책임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조직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바이러스 중독에 빠져 조직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일이다.

책임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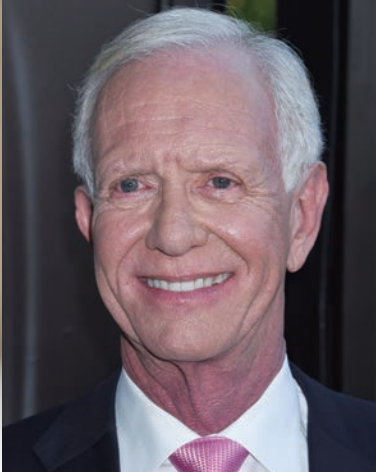
책임감은 교감하는 능력이다

인간과 동물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가 자기합리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책임지는 동물이다

책임을 짐으로써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명언을 남긴 이가 있지 않았는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책임감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라고 일갈했다. 역사의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역사의 객으로 전락할 것인가. 결국 책임감이 문제다.

Chesley Sullenberger



책임 뒤에는 겸손함이, 회피 뒤에는 변명과 거짓말이

그렇다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자신의 책임을 완수한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뽐내지 않는다. 조용한 겸손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변명과 거짓말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2009년 155명의 목숨을 구해낸 '허드슨강의 영웅'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이 전자의 사례이다. 그는 비행기가 강물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들이 모두 구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내를 두 번씩 오가는 책임감을 몸소 실천했다. 그리고 155명 전원의 생명을 건지고 영웅으로 부상했다. 그 후 자신의 고향인 샌프란시스코 외곽 덴빌시에 금의환향한 설렌버거는 3천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설렌버거는 짧은 인사말과 겸손함으로 감사를 표시했다. “저와 승무원들은 평소 훈련 받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평소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는 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 참사'가 벌어졌다. 그때 책임자는 어떠했는가,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에서 “승인했다”로, 다시 “지시했다”로 바뀌는 지리한 답변에서 ‘책임감’은 커녕 ‘의연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책임감은 교감하는 능력이다

책임감을 뜻하는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 ‘반응’(response)과 ‘능력’(ability)이 결합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고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이타심, 연민, 배려 같은 교감하는 감정이 없으면 책임감은 배양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타심으로 발현되는 책임감의 대표적 사례로 타이타닉호 사고를 꼽는다. 타이타닉 사고 때 여성 생존자가 많은 것은 선장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타이타닉호 선장은 은퇴를 앞둔 에드워드 존 스미스였다. 그는 승객 중에서 어린이, 여자, 남자 순으로 탈출토록 했고, 총으로 공포를 쏘면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게 했다. 그는 조타실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그의 고향인 영국 리치필드에서는 배와 운명을 함께한 스미스 선장의 동상을 세우고 동판에 “영국인답게 행동하라”(Be British)는 그의 마지막 말을 새겼다. 또한 선내 악단의 리더였던 월리스 하틀리는 침몰 도중에도 선내 악단이 연주를 멈추지 않도록 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위해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음악을 연주했다는 일화는 영웅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겠지만 실화일 확률이 더 높다. 실제로 월리스 하틀리는 타이타닉 침몰 후 1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신문들은 ‘정장 차림인 하틀리의 시신에 그의 바이올린이 묶여 있었다’고 보도했다. 스미스 선장과 하틀리 악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 하는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보였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responsibility

무책임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무책임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공동체 사회에 미래는 없다. 그것이 기업의 내부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이 틀어질 때마다 남의 탓, 주변 상황 탓을 들먹이는 기업 내부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독일의 경영 컨설턴트인 라이하르트 슈프링어도 그의 책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강한 책임감은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책임을 짐으로써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명언을 남긴 이가 있지 않았는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책임감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라고 일갈했다. 역사의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역사의 객으로 전락할 것인가. 결국 책임감이 문제다.

책임감, 1 이상의 응답 능력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뜻의 영어는 Responsibility이다. 이를 파자하면 Response + Ability가 되어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해석된다. 즉, 1의 응답 요청이 왔을 때 1 혹은 그 이상의 응답이 책임감이라는 말이다.

링겔만 효과(Ringelman effect)라는 것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 또는 집단에게 줄을 당기도록 했는데, 그 결과 3인 집단이 당기는 힘은 개인이 당기는 힘의 3배가 아닌 2.6배로 관찰되었으며, 8인 집단의 힘은 3.9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효율성은 더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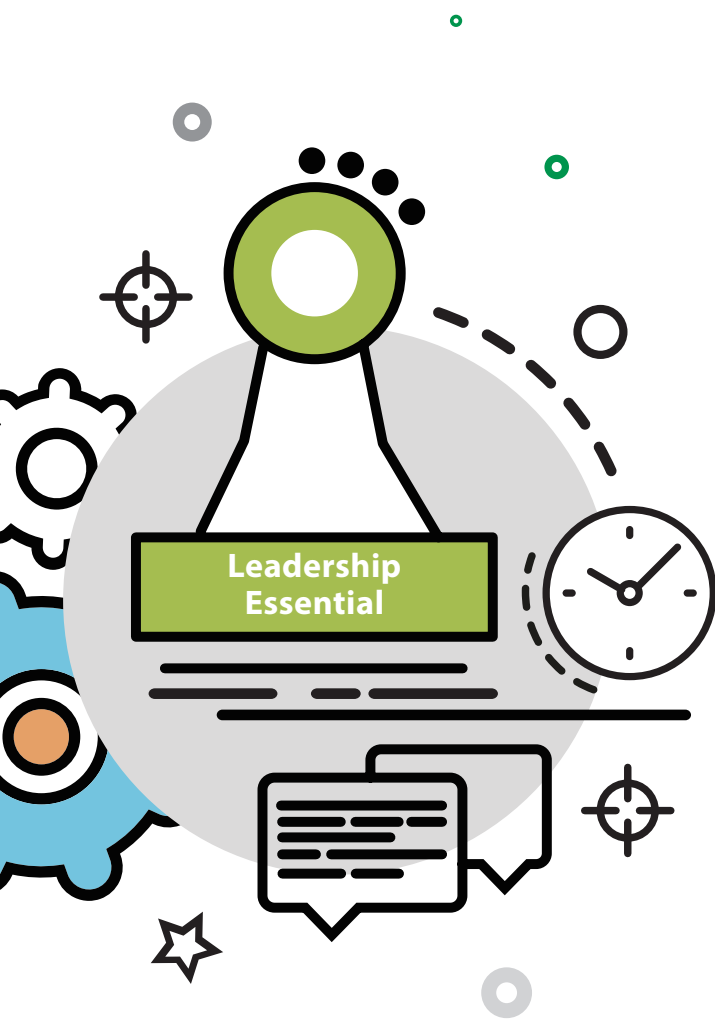
RESPONSE + ABILITY

라타네, 윌리엄스, 하킨스(Latané, Williams & Harkins, 1979)의 실험도 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크게 고함을 지르도록 하고 개인별 소리의 크기를 측정했다. 참가자 한 명이 홀로 소리를 지르는 개인에 비해, 참가자 두 명이 함께 소리 지르는 2인 집단에서는 소리의 크기가 34% 감소했으며, 6인 집단은 64% 감소했다고 한다. 이들은 실험 설계를 달리해 이번에는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홀로 소리를 지르도록 했다. 하지만 눈가리개 등을 이용해 개인 혹은 집단으로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믿게 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믿은 참가자들은 개인 능력의 82%만, 6인 집단이라고 믿은 참가자들은 개인 능력의 74%만 소리를 질렀다. 즉, 개인별 노력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믿음이 낮은 응답을 야기한 것이고, 이 응답력은 줄다리기 등과 같은 신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과제는 물론 창의성 문제나 의사 결정, 브레인스토밍 등과 같은 인지적 과제에서도 발생한다고 한다.

회사의 중요한 Leadership Essential 중의 하나인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1의 응답 능력을 모두 발휘하는 것이 책임감의 시작이 아닐까. 더구나 조직은 협업을 통해 함께 일하는 구조이기에 집단의 응답 능력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실험처럼 개인의 모든 능력이 집단으로 되었을 때는 총합 혹은 그 이상의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집단이 갖는 책임감의 분산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구성원에게 보내는 메일보다는 1명의 수신인과 참조로 보내는 메일의 회

신뢰가 빠르다. 즉 분산되는 혹은 분산 될 것으로 생각하는 책임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최상의 응답을 유지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목표 및 적절한 보상의 부재이다.** 집단의 결과물이 모두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믿음과 이에 적절하게 보상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1 이상의 책임감이 응답되는 것이다. 위의 실험에서 단순 합 이상의 힘이나 소리를 목표로 공유하고, 이것이 개별적으로 측정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합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답률을 높이는 중요한 한 가지는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집단의 가치를 공유하고 상황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응집력은 높아지고 응답 역시 총합 이상이 될 것이다. 책임감은 이러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발휘되고 그 이상의 합이 되어 응답으로 돌아올 것이다.



책임감이라는 뜻의 영어는 Responsibility이다. 이를 파자하면 Response + Ability가 되어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해석된다. 즉, 1의 응답 요청이 왔을 때 1 혹은 그 이상의 응답이 책임감이라는 말이다. 회사의 중요한 Leadership Essential 중의 하나인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1의 응답 능력을 모두 발휘하는 것이 책임감의 시작이 아닐까. 더구나 조직은 협업을 통해 함께 일하는 구조이기에 집단의 응답능력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세플러 그룹에서는 책임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 현재 회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임감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 ▶ 명확한 의사결정과 결정에 대해 지지하기
- ▶ 필요 시 충분히 고려한 후 위험 감수하기
- ▶ 해결책을 찾기 위한 주인의식 가지기
- ▶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 수용하기
- ▶ 팀의 결정을 지지하기

이는 응답률 이상의 내용으로, 의사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포함이다. 또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건설적인 오류 인정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울러 다른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은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고객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분명하다.

이상 4회에 걸쳐 회사의 Leadership Essential의 주요한 내용인 Care for People, Drive the Change, Manage for Result 그리고 이번호의 Take on Responsibility까지 연재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Leadership Essential에는 Connect for Success와 Empower your Team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은 세플러에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새로운 Leadership 요소를 실제 업무에서 적용해 모두 조직의 Role Model이 되기를 바랍니다.



22_ Show me the 팀웍

26_ 같이의 가치

28_ 포토 에세이

30_ 가족사진촬영기

34_ 식사를 합시다

36_ Young 세플러

End and Start

한 해가 지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된다.
이맘때면 늘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작된 2019년의 아쉬움을 덜 남기는 것이다.
늘 그랬지만, 온전히 처음인 것처럼
새로운 일들을 품고, 실행하라.

이동희 세일즈장이 이끌고 있는 새시시스템 BD 영업은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부품을 다루고 있다. 자동차 시장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Automotive OEM Division 내에서 유일하게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서 2018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해외영업과 국내영업으로 담당을 분리하는 등 새로운 변화도 있었다.

2018년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우리는 일당백”

자동차 시장의 하강 국면 속에서도 최대 매출 기록

새시시스템 BD 영업에서는 자동차 새시 부품 중에 Wheel, Steering, Drive shaft support, Suspension strut, EGR valve, LPi pump, Aircon compressor, ABS motor 등에 적용되는 Bearing 및 각종 Ball screw(Brake system, DCT transmission actuator, R-MDPS, EPB)의 신규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부품을 다루고 있다.

지난 11월은 새시시스템 BD 영업 조직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었다. 팀이 생긴 이래 월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시장의 하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새시시스템 BD 영업은 2018년 매출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했다. 세플러의 Automotive OEM Division 내에서 유일하게 연초 계획했던 매출 목표를 달성해 더 주목받고 있다.

새시시스템 BD 영업

SCHAI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부진을 겪으면서 새시시스템 BD 영업은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8년을 맞이하면서 최우선 과제를 '매출 목표 달성'으로 잡았다고 한다. 새시시스템 BD营业을 이끌고 있는 이동희 세일즈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팀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2018년은 자동차 시장이 꽤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2018년 사업계획을 무난하게 달성했어요. 특히 11월에는 월 단위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그 성장세를 이어가며 12월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성과라 팀원들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원 부서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라는 말도 강조한다. 국내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혁준 팀장도 새시시스템 BD 영업의 힘만으로 이런 성과는 아니라고 덧붙인다.

“세일즈는 영업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부 내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저, 생산 현장 등에서도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적은 영업에서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부서와의 협업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FFLER



왼쪽부터

이영호 부장
이혁준 선임매니저
이동희 세일즈장
박한별 대리
윤오석 선임매니저
유인영 차장
이태훈 차장

다양한 경험치를 가진 구성원들이 만든 시너지 효과

그렇지만 Automotive OEM Division에서 유일하게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영업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이 큰 힘을 발휘했다. 영업에서만 잔뼈가 굵은 직원들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까지 합류해 특특히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

“타사를 비롯해 공장, IB 등 여러 부서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들이 새시시스템 BD 영업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만큼 고객을 대하는 시각이 다양해질 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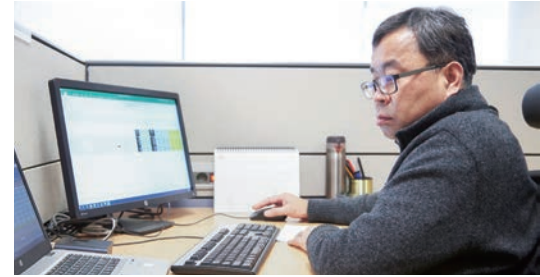
이동희 세일즈장과 이혁준 팀장은 영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로 팀의 중심을 든 든하게 잡아주고 있다. 이영호 부장과 박한별 대리는 산업기계 사업부에서 합류했고, 이태훈 차장은 생산파트, 안재범 차장은 타사에서 영입된 인물이다. 모두 새시시스템 BD 영업에 합류한지 2년 남짓이다. 해외영업 팀장을 맡고 있는 윤오석 부장도 팀에 합류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다.

“트랜스미션, 엔진 품목과 달리 새시 품목의 경우 여러 부품을 다룹니다. 직원들도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새

시 품목의 특성 상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구성원들이 필요한 거죠.”

새시시스템 BD 영업이 자부심을 느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K3 플랫폼에 들어가는 스트러트 베어링을 수주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K3 플랫폼은 원래 세플러에서 공급하던 것이었는데 경쟁사에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뜻깊은 성과다. 무엇보다 단일 차종이 아니라 플랫폼을 수주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안정적,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영업사원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를 꼽자면 뭐라 해도 수주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2020년 이후 양산되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트러트용 베어링을 수주했어요. 우리가 수주한 제품이 실제 양산되면 더욱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새시시스템 BD 영업

2018년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우리는 일당백”





즐거운 사보 촬영을 마친 뒤 다함께 하는 간식시간. 바쁜 업무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다는 팀원들은 사보 촬영 덕분에 간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다고 즐거워했다.

지난 7월부터 국내영업과 해외영업으로 분리

새시시스템 BD 영업은 지난 7월, 해외영업과 국내영업으로 담당을 달리해 분리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영업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볼스크류를 국산화하고, 해외영업에서는 포화상태가 된 국내 휠 베어링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 개척을 당면 과제로 잡고 있다. 특히 고객을 세분화하고 해외영업을 신설한 것은 향후 새시사업부의 성장 동력을 해외시장에서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 해외영업 윤오석 팀장은 북미시장과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휠 베어링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특히 JOEM의 마츠다,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과 포드, GM 등 북미 자동차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새시 세일즈 매출액 중 해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도에 불과하지만 2023년까지 해외시장 비중을 42%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우선, 포드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포드 스터디’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산타가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인원 확충’을 꼽았다. 8명이 국내영업과 해외영업을 담당하다 보니 팀 분위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다이내믹하다고 한다. 인터뷰 당일에도 이동희 세일즈장은 예정에 없던 해외 출장으로 일찍 자리를 떠야 했다. 베어링 긴급 수급 협의를 위해 슬로바키아로 날아간 것. 안재범 차장도 급하게 잡힌 고객 미팅을 수행하느라 아침부터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비단 이날 아침만의 풍경은 아니라고 한다.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팀원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다고 토로한다. 새시시스템 BD 영업이 Automotive OEM Division 내에서 유일하게 매출 목표를 이룬 이면에는 팀 구성원들이 쏟은 땀방울이 있었던 것이다.

mini interview



이혁준 팀장(국내영업 담당)

팀장을 맡은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팀원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처럼 힘든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당백을 해야 하는 팀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팀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오석 팀장(해외영업 담당)

올해 10월,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팀을 이끄는 가치는 팀장과 팀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장입니다. 이를 통해 팀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팀원들의 자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과는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팀의 역동성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새시사업부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어링 허브 제조 기술은 저희가 최고입니다”

1993년 창립한 삼동허브는 HUB, CARRIER, KNUCKLE 등을 가공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다. 세플러와 협력관계를 맺은 지는 4년째로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꾸준한 성장이 눈에 띄고 있다. 기업인이라면 도전을 즐겨야 한다는 신병일 대표를 만나 삼동허브의 모든 것을 물었다.



삼동허브(주)

대표이사
신병일

Q. 삼동허브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삼동허브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자동차 허브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경주와 김제에 공장이 있으며, 김제공장의 경우 생산된 모든 제품이 세플러 전주공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사 자동차 부품인 휠베어링 수주를 계기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Q. 최근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세플러코리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H사에 1세대 허브를 납품하는 것을 넘어 3세대 허브를 포드와 GM, 다임러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곧 3세대 열처리 설비를 도입해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에도 납품할 예정입니다.

Q. 업무의 특성 상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희의 고민은 첫째도 품질, 둘째도 품질입니다. 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신규라인 작업자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가공라인에 F/Proof(실수방지) 장치 및 자동검사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Q. 최대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요?

25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베어링 허브 제조 기술은 국내에서 저희 삼동허브가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더불어 3세대 열처리와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Q. 대내외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삼동허브는 2016년부터 경영 시스템 레벨업과 장기적 성장을 위해 10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사내 헬스장 운영 및 동호회 및 경조사 지원, 특성화 고교 학생들을 선발해 미리 훈련시키는 도제학습 시스템 도입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세플러코리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불량 제로의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플러코리아는 엄격한 품질 향상 기술 지도를 해주신다면 꾸준한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보 출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세플러코리아에서 허브차를 전했다.

Q. 앞으로 삼동허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선 진행되고 있는 3세대 열처리 시설의 양산을 하루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부 품종이 아닌 당사가 생산하는 전 제품의 열처리 공정이 김제공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5년 안으로 생산 공정 개선, 공구 개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구축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세플러코리아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동허브(주) 대표이사 신병일입니다. 지난 4년간 세플러코리아와 협력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상생을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하는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항상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세플러코리아에 감사드리며, 2019년 새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의 크리스마스

교본문고에 어른 키보다 훌쩍 큰 곰 친구가 놀러 왔어요.
왜 이렇게 반갑던지.
어릴 적 크리스마스만 되면 내 덩치만한 곰 인형을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었는데...
엄마, 아빠의 손을 이끌고 곰 인형을 사러 나섰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 서울사무소

Photo
essay



전주 명물 콩나물 국밥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겨울.
연탄 나눔 봉사활동 후, 동료들과 추운 몸을 녹이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 전주공장



메리 크리스마스

연구소 입구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무심코 보던 이 트리가 크리스마스를 잊지 않게 하네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카드라도 전해야겠습니다.

● 테크놀로지

겨울 흥시

양상한 가지에 흥시가 매달려 있네요.
 아마도 추운 겨울을 버텨낼 새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남겨 놓은 이 흥시처럼
 우리도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요.

● 안산공장





전주공장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한민수 사원 가족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가족 케이크'

왼쪽부터 아내 송진화 씨, 차남 한유빈, 장남 한승민, 한민수 사원

우당탕탕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다 싶더니 개구진 표정의 승민이와 유빈이가 문을 연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민수 씨 가족이 촬영장에 도착한 것이다.

겨울호 가족사진촬영기는 특별한 12월을 기념하기 위해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승민이와 유빈이의 케이크 만들기 대결은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날까?



누가 누가 잘하나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승민이와 유빈이는 지친 기색 없이 싱글벙글이다.

“오늘 케이크도 만들고 사진도 찍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소풍 전날 밤처럼 잠을 설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만 피곤하지 아이들은 쌩쌩하네요!”(한민수 사원)

아이들은 케이크에 올리는 갖가지 소품들과 재료를 둘러보며 탐색전을 펼친다. 케이크 시트가 나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듬뿍 올릴 작정이다. 꾸미기 재료를 둘러보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재미있는 제안을 한다.

“우리 팀을 나눠서 오늘 누가 더 멋있게 케이크를 만드는지 내기해보자. 어때?”(송진화 씨)
이내 아이들의 두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승민이는 아빠, 유빈이는 엄마 옆으로 가서 앉더니 자연스럽게 팀을 만든다. 두 팀은 전략 아닌 전략을 세우며 딸기와 초콜릿, 모양 과자와 젤리 등 멋진 케이크를 완성하기 위한 부재료를 꼼꼼히 챙긴다.

지금부터 실력을 보여주마

미리 골라 놓은 레인보우 빵 시트에 새 하얀 생크림이 매끈하게 발려 나왔다. 미적 감각 있는 엄마와 유빈이는 하트 모양의 시트를 선택하고, 아빠와 승민이는 깔끔한 둥근 시트를 골랐다.

“승민아, 잘해서 우리가 이기자!”(한민수 사원)

“유빈아, 우리가 아빠 팀보다 더 예쁘게 만들자!”(송진화 씨)

생각보다 진지한 두 팀의 각오로 케이크 만들기 시작됐다. 가족들은 간만에 팔을 걷어붙이고 초 집중 모드에 돌입한다. 짚주머니로 케이크 테두리를 장식하고, 사이사이는 빨간 딸기를 살포시 올린다. 유빈이는 좋아하는 초콜릿을 올리다가 먹다가를 반복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어느새 아이들은 부재료를 먹느라 정신이 없고 엄마, 아빠는 조금이라도 모양을 내려고 애를 쓴다.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이것저것 많이 올리면 풍성해 보일 줄 알았는데~”(한민수 사원)

“이미 승민이가 손으로 일그러뜨린 케이크 단면은 복구가 어렵겠어요.(웃음)”(송진화 씨)

모양이 나오지 않아 난감해 하는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은 그래도 잘 했이라며 엄지를 들어 보인다. 새하얀 생크림과 초코로 입가와 손을 범벅을 한 아이들은 케이크의 모양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마냥 행복하다.





연애 9년, 결혼 7년

한민수, 송진화 부부는 9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결코 적지 않은 이 시간을 연인으로 보낸 이들은 단 한 번의 흔들림이 없었다고 한다.

“군대 제대 후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한 눈에 반할 만큼 예뻐는데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만날 수록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착하더라고요.”(한민수 사원)

“꾸준히 만나다 보니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싶어서 결혼하게 됐죠. 지금은 아이들이 있어서 챙기는 데는 조금 소홀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은 변함없어요.”(송진화 씨)

9년 연애와 7년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이들은 여전히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였다.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말해달라고 하니 이구동성으로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만족한다.

“아내에게 제일 고마운 건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 텐데도 주말만 되면 시댁을 찾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외식을 하거나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도 꼭 부모님을 모시고 가자고 먼저 얘기하죠.”(한민수 사원)

“적적하신지 아이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따로 해드릴 효도가 없어서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송진화 씨)

곧 돌아오는 시아버지 칠순 생일에도 온 가족이 모두 여행을 떠난다는 송진화 씨는 아이들과 만든 오늘의 케이크도 시댁을 찾아 함께 나눌 계획이란다.

가족에 충실하고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시댁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의 모습을 당연함이 아닌 고마움으로 표현하는 부부. 이들의 사랑이 16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특별한 경험, 즐거운 시간

이제, 완성된 케이크를 들고 기념사진을 남길 시간이 됐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엄마와 유빈이 표 케이크와 아빠와 승민이 표 케이크를 두고 양 팀이 설전을 벌인다.

“유빈아~ 형아 팀이 더 잘했지?”(한승민)

“아니야~ 유빈이 게 더 멋있어! 그렇지 엄마?”(한유빈)

사소한 것에 잘 웃기도 하지만 금세 심각해지는 아이들을 위해 아빠 한민수 씨는 오늘의 케이크 만들기는 ‘둘 다 참 잘 했어요!’로 급하게 마무리하고 나선다.

승패를 가리지 못한 아이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멋진 고깔모자를 쓰고 케이크를 자랑하며 인증 샷을 찍기로 했다. 끝까지 초코 빼빼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촬영 타이밍을 놓치는 유빈이와 때 맞춰 살인미소를 발사하는 승민이의 상반된 모습에 촬영장은 웃음바다가 된다.

실은 송진화 씨는 사보 촬영을 고사 했었던단다. “가족이 사보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어디서 하나 싶어요.”(송진화 씨)

유빈이 돌 촬영 이후로는 가족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다는 진화 씨는 예쁜 가족사진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 만들기라는 특별한 경험이 정말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한민수 사원 가족은 세 상에서 단 하나 뿐인 케이크를 들고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전주공장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한민수 사원 가족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가족 케이크’



—
 테크놀로지
 연구기획 김경운 부장
 테이퍼롤러베어링 설계
 박광수 대리
 RPA & 벤치마킹
 김훈 대리
 폴리머 & 윤활기술
 백상하 대리가
 추천하는
 맛집



왼쪽부터 박광수 대리, 김훈 대리, 백상하 대리, 김경운 부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2번길 14 ☎ 055. 276. 8805



제주 흑다돈은 박광수 대리가 신입사원 때 회식 장소를 잘못 예약하는 해프닝 덕에 김경운 부장 소개로 오게 된 곳이다. 본래도 네 사람은 협업을 통해 친분이 있었지만, 종종 이곳에 들러 소주 한잔을 나누며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입사동기 세 대리가 친형처럼 따르는 김경운 부장을 위해서 마련했다. 그동안 업무적인 노하우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경운 부장에게 고마움이 컸기 때문이다. 직급을 넘어 격 없이 지내는 네 사람이 동료애를 다지기 위해 자주 찾는 사랑방 흑다돈. 이곳의 제주 흑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마블링 상태가 탁월해 식감이 부드럽고 고기 맛이 고소하며 쫄깃하다. 특히 곁들여 오는 새콤달콤한 파절이 무침과 제주산 멀치젓은 감칠맛을 더해 젓가락을 바쁘게 만든다.

흑돼지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돼지는 검은색의 흑돼지이다. 제주 흑돼지도 다른 재래돼지처럼 몸 전체가 빛이 나는 검은 털로 덮여있는데, 외국종과 달리 얼굴이 좁고 주둥이가 길며, 몸집이 작고 살집이 없는 편이다. 제주도 흑돼지는 일명 통돼지로 불리는데 인분을 먹여 사육하던 방식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부지방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돼지 사육 방법이 개선돼 인분을 먹여 기르는 경우가 사라졌다. 우리나라 재래종인 흑돼지는 외국의 개량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고기의 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다. 아쉽게도 1900년대 들어서는 번식이 잘되고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외국 개량종과 교배가 되면서 점차 순수 재래종의 흑돼지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는 돼지의 형태와 유전적 조사를 통해 재래돼지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래종인 흑돼지는 2015년 3월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되었다.



삼겹살

통계의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4일에 한 번은 삼겹살 1인분을 먹는다고 한다. 또 삼겹살을 먹기 위해 ‘삼삼데이’를 만들었고, 면지를 마신 뒤에는 삼겹살을 먹어야 면지를 벗겨낼 수 있다는 속설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게다가 삼겹살을 근본으로 하는 대패삼겹살, 목삼겹, 오겹살 등의 다양한 메뉴도 만들었다.

본래 돼지고기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비계를 가장 맛있는 살코기, 즉 삼겹살로 둔갑시킨 사람은 예로부터 장사수완이 좋기로 유명한 북한 지역의 개성 사람들이다. 개성상인들은 돼지를 살코기에 그냥 비계덩어리가 볼도록 키우지 않고, 비계 끝에 다시 살이 생기고 그 살 끝에 다시 비계가 붙는 식으로 육질을 개량했다고 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 근육과 근간지방이 세 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 삼겹살이다. 지방과 살이 번갈아 있는 삼겹살은 지방의 함량이 높고 단백질이 적지만 진한 고소함과 육단백질의 구수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내보자.



“안녕하세요. Global Technology Services 윤태준 대리입니다. 과거 단편적인 기술 지원 업무로 IT 업무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세플러코리아를 알게 되었고, 장기적인 업무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시스템에 매력을 느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된 OJT를 통해 동료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쉽고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세플러인이 되어 가장 행복한 것은 사회초년생 때 샘뉘던 그 열정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 강점 중에 강점인 ‘노력’을 더해 네트워크 분야에서 손꼽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해 보고 싶습니다.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 좌우명처럼 항상 부지런한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윤태준 대리

I'm new

영 세플러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AP

박중현 과장

“안녕하세요. Global Technology Services 박중현 과장입니다. 저는 IT조직의 구성원으로 사용자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IT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설고 서툰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동료들 덕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일원이 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 팀뿐만 아니라 업무로 만난 인사, 구매, 회계 등 다수의 부서들이 바쁜 와중에도 협업 요청에 협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을 보진 못했지만 벌써부터 새로운 부서 담당자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배려와 소통에 강한 세플러코리아에서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일들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38_ 세플러 로드

42_ 행복한 직장인

46_ 문화의 숲

50_ Schaeffler FOCUS

54_ Schaeffler NEWS

55_ Schaeffler Hotline

Refresh

1월만의 특권이 있다.

어느 때와 달리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새해를 열심히 달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1월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여행이든, 독서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나만의 시간으로 리프레시를 가져라.

활기찬 시작의 원동력이 된다.

눈은 일본 겨울여행의 전부다.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삿포로 눈축제, 니가타현 남단의 쓰난 눈축제, 인기 드라마 아이리스의 배경이 되었던 아키타현의 가마쿠라 축제도 모두 눈과 함께해야 완벽해진다. 이맘때 눈을 온몸으로 느끼며 겨울을 만끽하고 싶다면 선택은 일본이다.

눈이 있어
특별한

Japan
일본의 겨울



Overview of locations

- R&D/engineering
- Sales
- Distribution



Schaeffler Japan

세플러 재팬은 세계 각국의 일본 고객들을 위해 일하는 독특한 조직이다.

이곳에는 제조시설이 없지만 세일즈 및 연구개발을 하는 R&D 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중앙 연구개발(R&D) 팀들은 지역 간, 분파적 팀워크를 촉진하는 '프로젝트 문화'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유기적인 시스템은 AP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무 방식은 일본의 협력문화인 JOEM-Way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은 주요 글로벌 고객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에 세플러 재팬 및 세플러 AP는 고객 다변화 및 신규 시장 개발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세플러 그룹 내 다른 국가와 일본 고객들의 문화와 기술적 차이를 메워주는 세플러 재팬, 그 가교 역할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1 2

언제라도 부담 없는 일본 여행 올 겨울은 눈축제로 만난다

겨울이 되면 일본 곳곳은 눈축제로 들썩인다. 눈이라는 공통된 소재로 열리는 축제들이지만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특색을 지니고 있다. 볼거리와 재미가 넘치는 축제부터 신나는 체험과 상상 이상의 장관을 연출하는 축제까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시간들이 기다린다.

1. 풍등 날리기
2. 니가타현 스노보드
3. 삿포로 광장 조명 레이저쇼
4. 홋카이도 오도리 공원
5. 따뜻한 청주 아마자케
6. 가마쿠라
7. '아이스 몬스터'라고도 불리는 수빙

Hokkaido

삿포로 눈축제

브라질의 리우 축제(카니발), 독일 뮌헨의 옥토버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삿포로 눈축제. 올해로 70회를 맞이한 삿포로 눈축제는 본래 1950년 삿포로의 중·고등학생들이 공원에 6개의 눈 조각을 만들어 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뒤 삿포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고 지금의 풍성한 축제로 거듭나게 됐다. 축제장은 대형 눈 조각을 볼 수 있는 오도리 행사장과 얼음이 빚어낸 갖가지 조형물들이 환상적인 스키노 행사장, 눈장난 및 눈놀이를 즐길 수 있는 쓰도무 행사장으로 나뉜다. 특히 메인 행사장인 오도리공원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건축물들을 비롯해 동화 속 주인공 등 크고 작은 조각들로 완벽한 겨울왕국을 재현한다. 그 밖에도 음악회와 패션쇼, 스키쇼, 레이저쇼 등 다양한 행사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2019년 삿포로 눈축제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3



Niigata Prefecture 쓰난 눈축제

일본 니가타현 남단에 위치한 '쓰난마치(津南町)'는 일본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곳이다. 3월 8일~9일에 열리는 쓰난 눈축제는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스노보드 점프 대회와 풍등 날리기 행사로 진행된다. 고난도의 화려한 스노보드 점핑도 볼거리지만 일시에 2천여 개의 풍등이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축제 당일만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하니 그 인기가 실감된다. 그 외에도 전통적인 텐구(상상의 동물) 춤이나 눈놀이를 즐길 수 있는 코너, 흥을 더하는 라이브 공연과 노점 시장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참고로 풍등 날리기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http://snowfes.info>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4



Akita Prefecture 요코테 가마쿠라 축제

드라마 아이리스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아키타현. 이곳 아키타현 요코테시에서 열리는 요코테 가마쿠라 축제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물의 신을 기리는 행사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시내 곳곳에 가마쿠라(눈으로 만든 움집)가 설치되고, 가마쿠라 안에는 눈으로 된 제단과 난방과 떡을 굽기 위한 화로가 설치돼 있다. 아이들은 풍습에 따라 축제 방문객을 자신의 가마쿠라에 초대해 떡과 알코올 함량이 거의 없는 따뜻한 청주 아마자케를 대접한다. 대접을 받은 방문객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물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어 있다. 축제는 요코테시 곳곳에서 펼쳐지지만 요코테



5



6

강에서 절정을 이룬다. 바로 손전등만한 수백 개의 작은 가마쿠라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해가 지고 미니 가마쿠라 안에 촛불이 켜지면 동화 속 나라가 눈앞에 펼쳐진다. 하얀 설경 위에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수백 개의 촛불은 그 어떤 일루미네이션보다도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요코테시에는 현대적으로 재건된 요코테 성이 있다. 4층 높이의 성 꼭대기에서는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특별히 축제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하니 요코테시의 멋진 전경도 놓치지 말자. 축제는 2월 15일~1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www.yokotekamakur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Yamagata Prefecture 자오 수빙 축제

자오 수빙(樹氷) 축제는 일본 야마가타현 자오스키장(ZAO SKI RESORT)에서 열린다. 수빙은 긴 시간동안 눈이 녹고 얼기를 반복해 백색의 빙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자오스키장의 정상은 수빙이 잘 착빙되는 방대한 침엽수가 자생하고 있어 3월 3일까지 축제를 갖는다. 기괴한 형상으로 '아이스 몬스터'라고도 불리는 수빙은 이미 자연의 예술품으로 환상 그 이상의 경치를 자아낸다. 특히 해가 지면 조명과 어우러진 수빙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수빙은 굳이 스키를 타지 않더라도 곤돌라로 정상에 올라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불꽃놀이, 1,000인 핫볼 활주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스키장 및 축제에 대한 정보는 www.zao-ski.or.jp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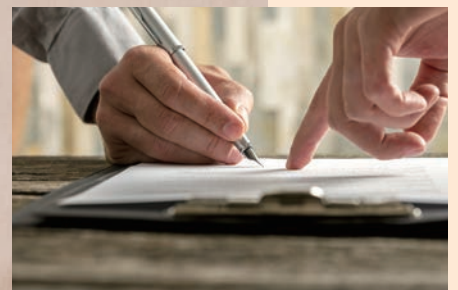
7



리더들이 꿈은 훌륭한 직업인의 조건은 책임감이라고 한다. 직원의 책임감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회사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 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발전하며 문제는 탁월한 방향으로 해결된다. 책임감을 즐기는 굿워커는 모든 리더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리바이스 이야기에서 배우는 책임감의 3단계





제이콥 데이비스(Jacob Davis)
(1834~1908)



리바이스 청바지 이야기

1870년 12월, 한 여자가 화가 난 듯 가게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지를 재단사 작업대에 던지며 말했다. “여기요! 2주 전에 사 간 바지에요! 아저씨 물건은 늘 이 모양이에요. 남편이 바지를 몇 번 안 입었는데 주머니가 찢어졌어요. 주머니 꿰맬 때 신경 좀 쓰세요!” 재단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 바지를 사서 입는 사람은 아주머니 남편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주머니가 뜯어지는 사람은 아주머니 남편뿐이군요. 아주머니 남편이 바지 주머니에 무거운 것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제 남편이 바지 주머니에 뭘 넣든지 간에 그건 아저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아저씨 임무는 주머

니를 튼튼하게 꿰매는 거고, 난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바지, 내일 오후에 다시 와서 찾아갈게요!” 라고 말하고서는 아주머니는 가게를 나가 버렸다.

재단사는 테이블 위에 있는 바지로 가까이 갔다. 바지 뒤쪽 왼쪽 주머니는 멀쩡했다. 그런데 앞쪽 주머니 두 개와 뒤쪽 오른쪽 주머니는 모두 축 처져 있었다. 옷감에는 아무 손상이 없었지만 주머니의 이음새는 완전히 찢어졌다. ‘이 바지를 입고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도대체 바지 주머니에 뭘 넣어서 이 모양이지?’ 그는 두 달대면서 뒷머리를 긁적긁적했다.

골똘히 생각하던 중 갑자기 그의 시선이 모포의 모서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구리 리벳에 꽂혔다. 그는 그중 두 개를 손으로 집어 찢어진 바지 주머니로 가져간 다음, 주머니 위쪽 좌우에 리벳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양새도 그리 나쁘지 않은 걸. 바로 이

거야!’ 재단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다음 날 바지를 찾으러 온 여자도 대만족했다.

위의 이야기는 리바이스 원조 재단사 제이콥의 이야기다. 리바이스 청바지에 리벳이 달려 있는 진짜 이유는 제이콥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직장인인 우리들에게도 조직이 바라는 책임의식 나아가 책임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도전하게 한다. 리바이스 청바지 이야기를 통해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보자.



3단계는 책임행동의 단계다. 고객이나 상대방 혹은 상황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완전히 내면화하고 소화한 다음 책임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리바이스 청바지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바지를 입고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도대체 바지 주머니에 뭘 넣어서 이 모양이지? 골똘히 생각하던 중 갑자기 그의 시선이 모포의 모서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구리 리벳에 꽂혔다.” 책임의식이 관찰을 부른다면, 책임행동은 질문을 부른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게 한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소중한다고 생각(count)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능력(ability)이 바로 책임행동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행동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고객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제 결론이다. 직장인들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가? 고객의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 무책임의 단계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객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행동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리하면 고객이 당신을 책임져 줄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고객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조직이 책임져 줄 것이다.



리바이스 이야기에서 배우는 책임감의 3단계

1단계는 무책임한 단계다. 책임의식조차 없는 경우이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리바이스 이야기에서 청바지를 사간 아주머니가 “청바지를 몇 번 안 입었는데 주머니가 찢어졌어요. 주머니 꿰맬 때 신경 좀 쓰세요!”라고 할 때 “아주머니,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 바지를 사서 입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주머니가 뜯어지는 사람은 당신뿐이군요.”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고객이나 상황에는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를 100% 모두 사용한다. 온통 모든 정신이 자신이 한 일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고객이나 상황이 보이지 않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무책임한 상태에서 책임의식을 갖는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은 잠시 벗어두고, 고객이나 상대방 혹은 상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2단계는 책임의식의 단계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상대방 혹은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반응하는 책임의식(Responsibility)으로 나타난다. 리바이스 청바지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재단사는 테이블 위에 있는 바지로 가까이 갔다. 바지 뒤쪽 왼쪽 주머니는 멀쩡했다. 그런데 앞쪽 주머니 두 개와 뒤쪽 오른쪽 주머니는 모두 축 처져 있었다.” 가까이 가서 유심히 관찰하는 행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의식이란 고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공감하는 반응(response)을 보이는 능력(ability)이다. 리바이스 청바지 재단사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자신의 청바지를 잘 입고 다니기에 단 한 명의 불평을 받는 것이 억울한 일이겠지만, 단 한 명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공감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의식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단 한 명의 불평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책임감 점수는 몇 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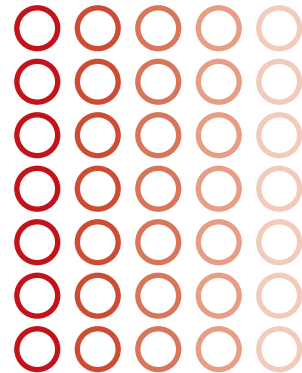
(다음 일곱 개의 책임감 체크리스트에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해보라.)



100 75 50 25 0

1. 상사가 시키는 일은 반드시 해내고 만다.
2. 나는 회사에 지각하지 않는다.
3. 상사든 후배든 내가 한 말은 지킨다.
4. 계획한 운동이나 공부 등 자기개발을 실행한다.
5. 나에게 주어진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다.
6. 어디서든지 내가 사용한 물건은 잘 정리한다.
7.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항상 그렇다면 100점, 자주 그렇다면 75점, 가끔 그렇다면 50점,
거의 그렇지 않다면 25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으로 채점하라. 그리고 이 점수들의 평균값이
바로 당신의 책임감 점수다. 90점 이상이면 책임감이 아주 강함, 80점 이상이면 강함,
70점 이상이면 보통, 60점 이하면 약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속이 땀 뚫리는 액션부터, 등골 오싹한 미스터리 호러물,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까지 영화의 장르는 많다. 하지만 마음이 행하게 시린 이맘때는 가족애가 녹아있는 해피엔딩 영화가 제격이다. 혹자는 뻘한 영화 아니냐며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연말연시이기에 이런 영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2시간의 따뜻한 겨울밤을 책임질 재미와 감동이 확실한 영화들을 소개한다.

연말연시 온 가족 무비무비



할머니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려는 이유?

아이 캔 스피크

● 주연 | 나문희, 이제훈 코믹드라마 119분,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전 <아이 캔 스피크>는 흥행 예상 성적이 높지 않았다. 나이 든 할머니의 영어 배우기란 스토리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하자 관객들은 <아이 캔 스피크>의 재미와 감동에 빠져 입소문을 냈고, 결국 총 320만 관객을 동원하며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아이 캔 스피크>는 평단의 평가도 아주 좋았다. 특히 나문희의 연기는 많은 관객에게 진한 웃음과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다. 1941년생인 나문희는 <아이 캔 스피크>로 그해 국내 모든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싹쓸이 했을 정도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

20년째 시장골목의 잔소리꾼으로 살아가며 구청민원을 8천 건이나 넣은 괴짜 할머니 옥분은 신입 공무원 민재가 영어를 잘하는 것을 보고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쫓아다닌다. 옥분과 민재는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민원을 그만 넣는다는 조건으로 개인 영어 강습을 한다. 옥분 할머니가 왜 영어를 배우려 하는 건지 궁금했던 민재는 할머니의 슬픈 과거를 알게 된다.

사실 <아이 캔 스피크>는 다소 어두운 과서사인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무겁지 않게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슬픈 과거사를 쉽게 공감하도록 만든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온 가족이 둘러 앉아 가슴 한편을 따뜻이 데우고 싶다고 주저 없이 선택해도 좋을 영화다.



얘들아, 엄마도 꿈이 있었어 엄마의 과거에 놀라지는 말고~

맘마미아 1, 2

● 주연 | 메릴 스트립, 아만다 사이프리트 뮤지컬 1편 108분, 2편 114분, 12세 이상 관람가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것으로 엄마의 복잡한(?) 과거를 알게 된 딸이 결혼식 당일 아빠를 만나고 싶어 아빠 후보들을 모두 결혼식에 초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거기에 너무나 유명한 팝송과 아름다운 그리스 해변을 풍경으로 환상적인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 뮤지컬 영화. 국내에서도 450만 명이 관람하는 등 1편의 성공으로 원작 뮤지컬에는 없는 2편(관객 229만 명)까지 제작됐는데, 1편보다는 완성도가 아쉽지만 그래도 극장 개봉 시 많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몰려가 울면서 봤다는 후문이다.

1편. 그리스의 아름다운 작은 섬에서 엄마와 살고 있는 소피는 행복한 결혼을 앞둔 신부. 하지만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 우연히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한 소피는 아빠로 추정되는 세 남자의 이름을 찾게 되고 엄마

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대한다. 결혼식 전날, 세 남자들이 도착하면서 엄마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결혼식은 난장판이 된다.

2편. 소피는 엄마의 뒤를 이어 호텔을 새롭게 열 준비를 하며 엄마를 추억한다. 소피의 엄마가 소피를 임신하게 된 화려했던(?) 과거, 그리고 아빠들(?)과의 로맨스가 이번에도 아름다운 그리스 해변에서 환상적인 음악과 춤으로 펼쳐진다.

원작 뮤지컬 <맘마미아>는 너무나 유명한 팝그룹 아바의 노래를 뮤지컬로 만들어 세계적으로 히트했다. 영화도 컷가를 맴도는 음악과 흥겨운 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 해변 풍경이 황홀하게 펼쳐진다. 진한 모녀의 사랑이 담겨 있어 여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영화 <맘마미아>. 누구와 함께 봐도 유쾌하고 행복한 영화가 될 것이다.





아빠도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다
우리 아빠는 보일러는 안 만들지만,
세상을 구해!

앤트맨과 와스프

● 주연 | 폴 러드 SF액션코미디 118분, 12세 이상 관람가

최근 할리우드는 <어벤저스> 시리즈의 흥행 이후 마블코믹스, DC코믹스의 아이언맨, 슈퍼맨 등 슈퍼 히어로물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그 중 개미처럼 작아지고 개미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앤트맨'은 사실 우리에게 낯선 마블 캐릭터인데 <어벤저스> 시리즈의 흥행으로 알려지며 국내에서 5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앤트맨과 와스프>의 독특한 재미는 딸에게 인정받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면서 히어로로 세상도 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딸바보 아빠가 주인공이라는 것. 그래서 가족을 위해 늘 고생하는 아빠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캡틴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캡틴아메리카를 도와주다가 체포되어 3



년 가택연금 중인 스캇은 히어로의 생활을 접고 가정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정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몰래 친구들과 사업을 하는 스캇. 하지만 스캇은 다시 앤트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딸도 히어로인 아빠를 응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FBI에게 들켜지 않고 집을 빠져나가 세상도 구해야 하고 좋은 아빠도 돼야 하는 스캇은 정말 바쁘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아빠의 부성애가 넘치는 영화. 세상을 구하면서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남자의 생계형 영웅담이 코믹하면서도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차, 건물의 크기까지 자유롭게 조정하는 앤트맨 아빠의 활약이 신나는 볼거리다.

악당과 싸운 것 보다 육아가 더 힘들어!
온 가족이 슈퍼히어로? 너도 자식 낳아봐!

인크레더블 2

● 애니메이션 125분, 전체 관람가

어른과 아이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인크레더블 2>는 어떨까? 가족 모두가 슈퍼히어로 능력을 가진 밥 가족의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슈퍼히어로도 육아전쟁 앞에선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코믹한 설정이 현실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도 공감을 산다.

아빠는 슈퍼 파워, 엄마는 신체 변형 능력, 딸은 투명 및 방어 능력, 아들은 초스피드 능력, 그리고 어린 막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인크레더블 가족은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바로 나라가 법으로 슈퍼히어로를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 인크레더블 가족에게 슈퍼히어로를 합법화 할 방법이 있다며 누군가 찾아온다. 하지만 그들은 아빠가 아닌 엄마를 원하고 결국 엄마가 슈퍼히어로로 세상을 구하는 동안 아빠는 육아를 담당하게 된다. 남친 때문에 예민한 사춘기 딸, 수학문제에 발목 잡힌 아들, 그리고 이제 막 초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 아들과의 육아전쟁에 빠진 아빠는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는 걸 깨닫는다. 이 때, 위기에 빠진 엄마를 구하러 나선 아빠, 거기에 아이들까지 합세하게 되는데... 결국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악당을 물리치는 <인크레더블 2>는 엄마, 아빠, 아이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영화다. 더불어 아이들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슈퍼히어로임을 말해주고 있다.



세플러 AP 리전 본부 사무실 이전



AP 리전 본부가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로운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자랑한다. 이전보다 약 40% 정도 더 넓어진 사무실은 한 층에 모든 부서를 재배치하면서 부서 간 협업이 훨씬 편리해졌다. 특별한 점은 이전과는 달리 1인 집무실을 포기하고 회의실 배치를 유연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씹크 탱크'와 같은 열린 공간과 프라이빗이 보장되는 미팅 룸 등 다양한 종류의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동지를 튼 AP 리전 본부는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넘어 혁신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AP 리전 본부 새주소: 18 Tai Seng Street #09-07/08, Singapore 539775

글로벌 브랜딩 강화를 위해 새로운 CI 선봬



세플러코리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CI 리뉴얼 및 옥외 광고물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CI 리뉴얼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세플러코리아 사무소와 창원, 전주, 안산 공장 및 창원, 안성 물류센터와 연구소에 순차적으로 적용 완료했다.

세플러 그룹은 지난 7월부터 전 세계 사업장에서 글로벌 브랜딩을 시행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독일 본사 옥외 간판에 새로운 CI를 적용해 기업의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앞으로 세플러 그룹은 그룹의 정신인 '하나의 세플러, 한 팀, 하나의 목소리(One Schaeffler, One Team, One Voice)'를 알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병찬 사장, 한국경제 신문과 인터뷰

오토 CEO 이병찬 세플러코리아 사장

“위기의 車부품업계…R&D 투자로 경쟁력 키우는 게 살길”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위기를 극복해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병찬 세플러코리아 사장(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부진 탓에 부품업계에도 그늘이 드리웠다. 집요한 연구개발(R&D) 투자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플러코리아는 베어링 시장에서 스웨덴 SKF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독일 세플러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베어링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제작해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닛산과 도요타, BMW, 폭스바겐 등 해외 완성차 업체



엔진 변속기 들어가는 핵심부품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공급

전기차용 모듈 등 신시장 선도 내연엔 부품선진국 日 진출 목표

도 주요 고객사다. 이 회사는 국내에 5개 공장과 2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21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2011년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서 지난해에는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플러코리아는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600억원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약 5%

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플러코리아가 R&D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 본사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세플러 독일 본사는 한국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며 “제조기업으로서 ‘업의 본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제품 경쟁력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내년도 사업 목표로 정했다. 그는 “경쟁력을 갖춰 부품 선진국인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일본에서 좋은 평판을 쌓으면 유럽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판매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로 변하는 과정은 세플러코리아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

사장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내연기관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친환경차 전용 부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며 “모터와 변속기가 통합된 전기차용 모듈 등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플러코리아는 베어링과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공장에 들어가는 제조설비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세플러코리아에서 개발한 제조설비를 글로벌 세플러그룹에 수출하기도 했다. 독일 본사로부터 제조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장은 “세플러코리아는 베어링 회사로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품 업체를 거쳐 메카트로닉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기술력을 키워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ok@hankyung.com

이병찬 세플러코리아 사장이 지난 11월 27일 한국경제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해낼 핵심이라고 강조한 이 사장은 해외시장 진출과 친환경차 시장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경쟁력을 갖춰 부품 선진국인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일본에서 좋은 평판을 쌓으면 유럽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판매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변하는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차 전용 부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한편, 세플러코리아는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600억 원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약 5%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독일 본사로부터 제조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인정받은 세플러코리아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거쳐 메카트로닉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국베어링산업협회, 제2회 ‘베어링인의 날’ 기념행사



지난 12월 19일, 한국베어링산업협회가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제2회 ‘베어링인(人)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베어링인(人)의 날’은 산업의 쌀인 베어링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베어링 산업에 기여한 산업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다.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 행사는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최고일, 국회의원 김성태, 영주시 김재광 부시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과장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 회원증 수여, 영주 첨단 베어링 클

러스터 사업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찬 한국베어링산업협회 회장(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은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베어링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동차·기계 등 베어링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해피빈’과 ‘장애물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진행

지난 12월 29일 세플러코리아는 ‘네이버해피빈’과 ‘장애물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가진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세상 만들기’는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에 따라 세플러코리아는 휠체어 및 보행기 마련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캠페인 참여는 네이버해피빈의 세플러코리아 캠페인에 접속 후 ‘내가 생각하는 장애물(어려움) 극복 방법’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댓글 1개 당 1천 원씩 최대 1,000만 원이 공익단체에 기부되며, 캠페인은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세플러코리아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음악동호회 봉사활동,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1기수씩 활동하는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참여 기부 활동을 갖고 있다.





엔진시스템사업부, 신년 산행



지난 1월4일 엔진시스템사업부가 관악산에 올랐다. 'The Smarter, The Stronger Engine 2019!'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산행은 어려운

경기를 이겨내고 매출 달성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 런칭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Schaeffler Quality Award 수상

지난 11월 14일, 안산공장 Thrust Needle Roller Bearing Cross-functional team은 Schaeffler Quality Award를 수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고객 불만 사례를 팀이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Thrust Needle Roller Bearing Cross-functional team은 크랙, 니들 누락, 이종혼입, 불안정한 회전 등을 꾸준히 검증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2018년 고객 불만을 제로로 만들었다.



연탄 나눔 봉사



지난 12월 15일,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은 연탄 나눔 봉사를 가졌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인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기부한 200만 원으로 진행됐다. 총 2천 장의 연탄을 구입해 900장은 직접 배달을, 1,100장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에 기부했다. 기부된 연탄은 전주 한옥마을 부근 동서학동 일대에 전해진다.



DIY 가구 만들기 봉사



지난 10월 12일 창원공장은 창원시 용지문화공원에서 'DIY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과 지원금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번 활동은 세플러코리아 자원봉사단과 경상남도 대학생 봉사단,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등 70여 명이 함께해 더욱 뜻깊었다. 7인 1팀으로 완성한 가구는 창원시 20여 개의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된다.

1사1촌 행복나눔사업

지난 11월 7일과 23일, 창원공장은 '1사1촌 행복나눔사업'을 가졌다. '1사1촌 행복나눔사업'은 창원시 관내 마을을 연결해 마을 가꾸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 돕기,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저소득층 장학금 후원



지난 12월 17일, 창원공장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4,8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창원 지역 7개 학교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아 총 60여 명의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이름 | 부서 | 날짜 | 경조 내용

서울사무소

신현아	회계	18.10. 7	부친 회갑
곽병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먼트	18.10.14	본인 결혼
최진선	SCM	18.10.19	모친 회갑
이경동	남부지사 직납영업	18.10.19	부친 회갑
김상수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 & e-mobility	18.10.20	장모 회갑
송형진	엔진 콤포넌트 BU 영업	18.10.23	부친 회갑
박은영	물류 네트워크 관리	18.10.24	모친 회갑
김정훈	중부지사 해외영업	18.10.25	장모 회갑
최승목	회계	18.10.27	자녀 결혼
안재환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 국내영업	18.11. 5	본인 회갑
김종민	협력사 개발	18.11. 9	장모 회갑
이병철	창원물류	18.11.22	모친상
이겨레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 국내영업	18.11.23	부친 회갑
임승준	자금	18.11.26	친조모상
정주호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18.12. 3	모친 회갑
김진호	창원물류	18.12. 8	자녀 결혼

안산공장

김상종	설비보전	18. 9.28	본인 결혼
오진선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18.10.18	모친 회갑
박민현	엔진 콤포넌트 BU 엔지니어링	18.10.20	장인 칠순
임병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18.10.28	본인 결혼
남춘욱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18.11.18	자녀 결혼
장경훈	생산계획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18.11.25	모친 회갑
이정민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18.12. 1	본인 결혼
김종탁	설비보전	18.12.11	조모상
성기찬	엔진부품 세그먼트	18.12.13	부친 회갑
유재훈	설비보전	18.12.16	본인 결혼
강석우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18.12.27	부친 회갑

전주공장

이상철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10. 8	장모 회갑
김동환	휠베어링 세그먼트	18.11. 5	부친 회갑
정희성	설비보전	18.11.24	본인 결혼
김준철	휠베어링 세그먼트	18.11.28	부친상

창원공장

조 환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 9.13	장모상
김상두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18. 9.15	자녀 결혼
최진문	선삭 세그먼트	18. 9.15	모친상
노치문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9.21	장모상
김일곤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18. 9.29	부친 회갑
전승진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18.10. 1	부친 회갑
나형주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10. 2	모친상
노호균	품질보증	18.10. 6	모친 회갑
조인제	품질보증	18.10. 7	자녀 결혼
이승진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10. 7	본인 결혼
이경내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10. 7	부친 회갑
이민석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10.13	본인 결혼
한일용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18.10.13	본인 결혼
김홍일	단조 세그먼트	18.10.14	본인 결혼
이용순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10.14	자녀 결혼

이름 | 부서 | 날짜 | 경조 내용

창원공장

손강수	테이퍼열처리 세그먼트	18.10.14	처남 결혼
백인범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10.15	출산
차영준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18.10.17	부친 회갑
이지수	품질보증	18.10.18	부친 회갑
서기한	설비보전 테이퍼베어링 MU	18.10.20	자녀 결혼
이재호	선삭 세그먼트	18.10.20	본인 결혼
이용희	선삭 세그먼트	18.10.21	본인 결혼
송영수	설비보전 베어링부품 MU	18.10.21	처남 결혼
조재원	설비보전 테이퍼베어링 MU	18.10.22	장인상
박지혜	비서	18.10.25	부친 회갑
김수현	공정기술 생산기술	18.10.25	부친 회갑
윤정배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10.26	장모 회갑
송인도	품질보증 볼베어링MU	18.10.27	본인 결혼
박기득	프로토타입 센터	18.10.27	본인 결혼
이진한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10.27	본인 결혼
권성희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18.10.28	부친상
김정기	툴센터	18.10.30	본인 회갑
김성한	선삭 세그먼트	18.10.31	모친 회갑
김대현	단조 세그먼트	18.11. 5	모친 회갑
서형선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11. 5	부친상
강호성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11. 6	조모상
김성한	선삭 세그먼트	18.11.13	장모 회갑
이기열	품질보증	18.11.17	자녀 결혼
이범주	품질보증	18.11.18	백모상
남궁일	설비보전	18.11.25	부친상
정이원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11.26	장인 회갑
김중년	단조 세그먼트	18.12. 1	자녀 결혼
김성식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18.12. 1	본인 회갑
김수곤	공정기술 생산기술	18.12. 2	본인 결혼
윤다예	생산계획 볼베어링MU	18.12. 2	본인 결혼
진병식	품질보증 볼베어링MU	18.12. 2	모친상
최성동	단조 세그먼트	18.12. 2	처남 결혼
박정호	품질보증	18.12. 4	장인상
강병열	툴센터	18.12. 9	본인상
구춘근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18.12.13	부친상
김수환	치공구서비스 베어링부품MU	18.12.13	부친상
배상진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12.16	자녀 결혼
석상준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12.20	모친 회갑
김태현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12.22	장인 회갑

테크놀로지

박경호	전기 설계	18. 9.29	장인 회갑
박광수	테이퍼롤러베어링 설계	18.10.14	본인 결혼
김용철	설비 조립	18.10.14	장인상
황산해	재료기술	18.11.03	본인 결혼
김슬기	BU새시&액세서리/액츄에이터 엔지니어링	18.11.17	본인 결혼
이상훈	기계 설계	18.11.10	부친 회갑
강민욱	재료기술	18.11.21	장인 회갑
김대곤	RPA & 벤치마킹	18.12.01	본인 결혼
송정민	기계 설계	18.12.03	본인 결혼
김도용	기계 설계	18.12.06	부친상
최승호	RPA & 벤치마킹	18.12.15	본인 결혼
김현용	테이퍼롤러베어링 설계	18.12.19	부친 회갑
문태현	볼베어링 설계	18.12.29	장모 회갑

독자엽서

이 엽서는
사배문서 수발용입니다

보내는 방법은
뒷면 참조

보내는 사람 _____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 □ □ □ □ □

받는 사람 _____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세플러 코리아 커뮤니케이션&마케팅

담당자 민유정 과장 앞

0 3 1 5 4



책임감

● 겨울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칼럼과 아쉬움이 남는 칼럼은 무엇인가요?

● **참여 신청란** <Show me the 팀웍> <포토에세이> <가족사진촬영기> <식사를 합시다>는 세플러코리아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하고 싶은 코너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독자 퀴즈

Q. 일본 삿포로 눈축제, 독일 옥토버 페스트와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것은?



1. 브라질 리우 축제
2. 중국 하얼빈 빙등제
3. 스페인 라토마티나
4. 한국 화천 산천어축제

가을호 정답



1. 전어

엽서 당첨자

- 고속영 과장(산업기계 영업지원)

● **엽서 보내는 방법** 각 공장 정문 경비실, 업무지원팀에 맡겨 주시거나 사내 파우치(커뮤니케이션&마케팅 민유정 과장 앞)를 이용해 주세요.

● 당첨하신 분께는 CJ 상품권 또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CJ 상품권

휴대용 보조배터리